

##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영

이 신 재\*

1. 서론
2. 전쟁과 라디오 방송
3. KFVN 설치와 운영
4. KFVN 운영성과 분석
5. 결론

### 1. 서론

1987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굿모닝 베트남(Good Morning, Vietnam)」은 전쟁터에서 라디오의 효용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는 베트남전쟁 당시 사이공(Saigon, 현 호찌민)에서 운영되던 미군의 라디오 방송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군 장병들은 주인공인 DJ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전쟁터에서 결전의 용기를 얻었다. 비록 이 영화는 반전영화로 평가되지만, 전장(戰場)에서 라디오 방송의 실태와 그 효과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어느 정도인지 잘 그려내고 있다.<sup>1)</sup>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 또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sup>2)</sup> 건국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해외파병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은 라디오방송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장에서 운용한 것이다. ‘주월(駐越)한국군방송국(KFVN: Korean Force Vietnam Network, 이하 KFVN으로 기술)’으로 불리던 당시 라디오방송국은 1965년 12월 시험방송을 시작해 1973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까지 무려 7년 이상 지속되었다. 전체적인 운영은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모습과 흡사했다. 여기에는 남녀 아나운서를 비롯해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많은 수의 방송요원이 파월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했다.

당시 KFVN은 건국 이후 해외에서 진행된 첫 국군방송이자 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해외 한국어 방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FVN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송사(史)에 일부가 기술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연구논문 한편 확인하기 쉽지 않다.<sup>3)</sup> 일부 방송 역사서에 이들 자료가

1) 영화 제목인 “굿모닝 베트남”은 주인공인 DJ가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 외치는 멘트였다.

2)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쟁의 명칭은 ‘베트남전쟁’이다. 베트남의 지명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전쟁 당시 사용했던 한글 지명으로 표기하고 영문표기를 부기하였다. 또한 월남은 남베트남, 월맹은 북베트남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했던 한국군에 대한 명칭은 고유명사의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주월 한국군사령부’, ‘주월한국군’, ‘파월한국군’으로 표기하였다.

3) KFVN에 대해서는 국군홍보관리소(현, 국방홍보원)에서 발간된 『국군방송사』에 일부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1977년에 발간된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한국방송사』를 편찬하면서 특수방송으로써 국군방송을 포함하여 편찬하였다. 그러나 『국군방송사』의 경우 전체 249쪽 분량이지만, KFVN에 대한 자료는 개관(概觀)의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5쪽에 불과하다. 『한국방송사』의 경우에도 2쪽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04년에 출간된 『국군방송 50년사』는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총 703쪽의 분량 중에서 6쪽의 화보와 13쪽에 걸쳐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기에도 당시 참전자들의 회고글을 포함하여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국군홍보관리소, 『국군방송사』, 1988;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04;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사』, 1977.

남아 있어 KFVN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국 현황을 나열한 정도이며 구체적인 방송국 설치 배경과 과정, 방송국 운영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결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일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당시 군의 작전 및 방송운영에 대한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베트남전쟁 연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방송국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것은 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의 방송국 운영이라는 데서 나아가 한국방송사의 첫 해외 한국어 방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KFVN에 대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파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건국 이후 최대의 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 방송국 운영사례는 향후 중요한 참고사례로써 충분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전쟁과 라디오 방송의 관계에 대해 라디오의 유용성과 전장에서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KFVN의 설치목적과 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KFVN의 운영성과를 장병 사기진작, 심리전 수단, 방송기술적 성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이다.

## 2. 전쟁과 라디오 방송

19세기 후반에 라디오(Radio)가 발명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라디오의 시대’<sup>4)</sup>가 열리게 되었다. TV가 나온 이후에도 라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전장에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전장에서 라디오를 활용한 사례는 많다. 가까운 예로서 6·25전쟁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2개의 라디오방송을 운영하였다. 1942년 8월부터 미 국무성에서 운영하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sup>5)</sup>과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이후 시작된 유엔군사령부의 라디오 방송인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sup>6)</sup>가 그것이다. VOA는 미국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방송 메시지의 요체는 반공과 친미였다.<sup>7)</sup> VUNC는 운영주체가 미 극동사령부 심리전과로 심리전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sup>8)</sup> 이 두 방송은 운영주체와 내용은 일부 달랐지만, 심리전 방송이라는 본질은 동일하였다.

6·25전쟁 이전까지 주한미군을 위한 방송도 존재했다. AFKN(America Force Korea Network)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방송(WVTP)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1945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국한

4) 라디오가 주로 활약한 시기는 1920년부터 50년까지 약 30년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일상·목철수, 『세계선전선동사』, 도서출판 이웃, 1989, 205쪽.

5) 박용규,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 제58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4, 357쪽.

6) 이 명칭은 초기에는 Voice of General MacArthur's Headquarters, Voice of the Free Peoples of the World 등으로 불리다 후에 VUNC로 사용되었다. 장영민,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281쪽.

7) 장영민, 「한국전쟁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제90호, 부산경남사학회, 2014, 258~259쪽.

8) 장영민,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281쪽. VUNC는 1971년 6월 30일 폐국 될 때까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전략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WVTP가 최초의 미군방송국이다. 미 국방성이 주관하였고, 주한미군을 위한 영어방송이었지만, 한국인들도 많이 청취하였다. ‘미군이 주도하는 곳에는 미군방송이 있다’는 원칙이 한국에도 적용된 것이었다. WVTP의 운영은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정훈과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1950년 6월 28일 방송이 중단되었다.<sup>9)</sup>

전쟁기간 중 유엔군사령부는 KBS를 심리전 방송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개전 직후부터 종전에 이를 때까지 심리전 전담부서를 통해 KBS 방송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전 방송의 기능을 유지할 의도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KBS의 방송시설 복구와 확충사업을 지원하였다.<sup>10)</sup>

일본도 라디오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은 만주국과 대동아 공영권의 통치를 위해 라디오를 활용하였다.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한 뒤 괴뢰국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선전활동에 주력했다. 여기에 지리적, 계층적 경계를 뛰어넘는 월경성(越境性)과 전파의 동시성(同時性)을 지닌 라디오가 활용되었다.<sup>11)</sup> 또한 1930년대 전쟁의 격화 속에서 생활조건을 공유하는 청취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방송을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청취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하에 이른바 단체 청취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sup>12)</sup>

이밖에도 독일 히틀러(Adolf Hitler)의 경우처럼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라디오를 독재자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한 사례는 잘 알려져

9) 박용규, 앞의 글, 357~365, 375쪽. 여기서 WVTP는 방송국 호출부호이다.

10) 장영민,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KBS 통제와 지원」, 『한국언론학회』 제56권 1호, 2012, 한국언론학회, 442~444쪽.

11) 정지희, 「듣는 주체의 창출과 전시 동원-전쟁기(1931~45) 일본의 라디오 청취지도-」,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동양사학회, 402~403쪽.

12)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파 라디오 방송」, 『만주연구』 제10집, 만주학회, 2010, 127~128쪽.

있다.<sup>13)</sup> 소련에서도 라디오는 당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민중교육의 수단, 공산주의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sup>14)</sup>

그렇다면, 라디오가 전장에서 활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라디오의 기능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였다. 라디오라는 매체는 방송을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다수의 청취자에게 전파가 미치는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수신기 1대만 있으면, 전파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다. 라디오의 이 같은 기술적 특징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자국 장병들에게는 뉴스와 오락을 제공하고, 대적(對敵), 대민(對民) 심리전에서도 유용성이 있었다.

특히, 심리전에서 라디오 매체는 많은 장점이 있었다. 국경선에 제한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장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라디오 방송은 대상자들이 방송을 듣고 이해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으며, 문맹일지라도 방송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채로운 프로를 융통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타 매개체와는 달리 선전이라는 인상을 피하면서 선전 주제를 쉽게 전달하고 인식시킬 수 있다. 방송 아나운서의 언어, 감정 등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라디오는 전장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효율적인 도구였다. 일반적인 경우 라디오는 뉴스와 오락,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선전

13) 히틀러는 라디오를 통해 파시즘을 널리 침투시켰다. 그의 라디오 활용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염가의 보급형 라디오(VE=폭스 앰프행거)를 제작하여 300만대 이상 보급하여 전체 청취자 수를 1933년부터 1942년 사이에 450만에서 1,600만으로 늘렸다. 둘째는 공공시설에 확성기를 부착한 라디오 설치, 셋째는 라디오 감시관을 두고 자신들의 희망대로 방송을 청취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유일상·목철수, 『세계선전선동사』, 100쪽.

14) 알렉스 인켈스 저, 이규중 역, 『소련의 여론』, 대학문화사, 1985, 259~260쪽.

15) 육군본부, 『야전교범 33-5 심리전』, 1988, 102~103쪽.

(propaganda)의 도구로, 또 전장에서는 심리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라디오는 효율적인 전시 선전도구로 가치를 인정받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전파전쟁’의 유력한 무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sup>16)</sup> 전장에서 라디오 방송은 철저한 계획하에 전투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 3. KFVN 설치와 운영

#### 가. 방송국 설치목적

한국군은 6·25전쟁을 통해 라디오가 전장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본격적인 파병이 추진되면서 KFVN 설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라디오 방송국 개설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남베트남 수상으로부터 전투사단의 증파 요청을 받은 직후인 1965년 6월 23일 이었다.<sup>17)</sup> 이날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대미협약각서」를 체결하였다. 10개 항의 협의내용 중 마지막 10번째가 ‘야전 이동방송국’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각서 상에 제시된 방송국 설치 이유는 “해외인 작전지역에서 임무기간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군 자체 야전 이동방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치 목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 16) 서재길,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183쪽.
- 17) 베트남 파병은 이동외과병원 130명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이 1964년 9월 1차로 파병되었다. 이후 비둘기 부대로 명명된 군사원조단 2000여 명이 1965년 2월 2차로 파병되었다. 이때까지 한국군은 비전투부대로 규모도 2000여 명이었고, 주둔지도 사이공지역에 집결되어 있었다. 이때까지 방송국 설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투부대의 파병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송국 설치도 함께 추진되었다.

첫째, 파견장병의 대공정신 교육 강화, 둘째, 적의 방송 방해전파 발사 및 대적심리전 방송 실시, 셋째, 본국방송의 중계로서 국내 소식 전달, 넷째, 장병의 오락 및 위문방송으로서 사기진작, 다섯째, 전황보도였다. 이를 위한 송신용 차량(출력 중파 5kW) 1대, 송신용 탑차(200피트 안테나) 1대, 방송용차 1대의 지원도 요청하였다.<sup>18)</sup>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비치(Dwight E. Beach) 대장은 1965년 7월 9일자 전문을 통해 한국측의 제안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동용 방송국 대신 남베트남 심리전부와 협조하여 남베트남 국립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sup>19)</sup> 결국 유엔군사령관의 제안과 남베트남의 협조로 방송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약정서 제11항에는 “군사목적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한국군은 월남 당국과 사전협조 후 월남내의 고정방송국, 기타 방송수신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sup>20)</sup>

방송국 설치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한국군이 제시한 방송국 설치 목적은 매우 명확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군이 제시한 설치 목적은 다섯 가지였으나 방송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국군 장병이고, 두 번째는 남베트남 주민, 베트남(Viet Cong: Vietnam Communist), 북베트남이었다. 한국군장병들에 대해서는 대공교육 강화와 국내소식전달, 장병 오락 및 위문을 통한 사기진작이 목적이었다. 남베트남 주민, 베트남, 북베트남에 대해서는 대적 심리전 방송이 목적이었다. 실제로도 KFVN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었다.

먼저, 대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베트남

18) 국방부, 「대미협의각서(1965. 6. 23)」, 국방부, 『전투사단 파월협정문(HB02626)』, 1965. 여기서 HB02626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사료 관리번호임.

19)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관 공한(1965.7.9)」, 국방부, 『전투사단 파월협정문(HB02626)』, 1965. 당시 비치 대장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USMAC-V)의 보고를 근거로 남베트남측과의 협조를 제시하였다.

20) 『한·월 군사실무약정서(1965. 9. 5)』.



전쟁이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베트남이나 북베트남과의 전쟁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소련과 중공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이념전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었다. 전쟁에서 이념 문제가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라디오를 통한 장병 대공교육을 제일의 방송국 설치목표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군은 방송의 목표를 “지휘의도의 전달, 반공사상의 고취, 한·월 친선과 이해증진, 진중생활의 명랑화”<sup>21)</sup>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송의 교육적 목표는 방송편성에서도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심리전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것은 첫 번째인 장병 대공교육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당시 주월한국군은 한국군의 심리전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 북한방송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sup>22)</sup> 실제로 북한은 1965년 12월 1일부터 하노이(Hanoi) 방송을 통하여 양호한 감도로 우리말 방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사이공에서 실시하는 우리말 방송보다 감도가 월등하게 양호하여 병사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sup>23)</sup> 또한 한국군의 평정작전을 위해서는 남베트남 주민 및 베트남, 북베트남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세 번째로는 장병들에 대한 국내 소식 전달, 오락 및 위문방송으로서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였다. 전장에서 자국 방송을 들으며, 자국 음악과 뉴스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해외에서 한국의 소식은 파병장병들을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로 묶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1) 맹호 정훈참모부, 「정훈장교 회의자료(1971. 12. 4.)」,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56~57쪽

23) 당시 북한 방송은 뉴스 해설 및 한국 민요 등을 방송하면서 중간에 한국 동요를 방송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뉴스 및 북한소식, 남한소식, 항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시 낭독, 국제정세해설(주로 월남전쟁) 반미선전 및 민요, 동요 등이었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58~59쪽.

그러나 방송국 설치에는 이 같은 명시적인 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목적도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베트남이라는 전장의 광활성에 따른 작전의 효율성 제고 수단과 한국 근로자들의 파견에 따른 측면이다.

먼저, 베트남 국토의 광활성에서 제기되는 작전의 효율성 측면이다. 1969년 기준 한국군의 전술책임지역은 6,800km<sup>2</sup>였다. 이는 당시 베트남 국토의 1/25의 면적이면서 남한 면적의 약 1/14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였다.<sup>24)</sup> 한국군 주둔지역간 거리는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주둔한 사이공에서 9사단이 주둔한 나트랑(Nha Trang)까지는 410여 km, 나트랑에서 수도 사단이 주둔한 퀴논(Qui Nhon)까지는 200여 km, 퀴논에서 해병 제2여단이 마지막으로 주둔한 호이안(Hoi An) 근처 다낭(Da Nang)까지는 300km나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거리는 한국군을 통합 관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였다. 이런 작전환경에서 라디오는 작전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둘째는 베트남 현지에 거주중이거나,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방송이었다. 라디오 방송의 정보제공 기능은 현지 한인들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베트남과 1956년 5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남베트남 현지에는 많은 숫자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진출하게 되었다.<sup>25)</sup> 이들에게 라디오방송은 장병들에게처럼 한국의 소식을 전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당시 한국군은 장병들에 대한 대공교육 강화와 사기진작 및 뉴스보도, 그리고 심리전 작전의 수단이라는 목적으로 방송국 설치를

24)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전투제원』, 1969.

25) 1965년부터 1971년까지 파견된 근로자는 총 25,082명이였다. 이는 동 기간 한국의 근로자 해외진출 총인원 52,520명의 47.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시 한국 근로자들은 RMR-BRJ, PHIL CO 등 28개 외국인 회사와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한진상사 등 58개 한국회사에 근무하였다.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 연보 1971』, 국방부, 1971, 563~567쪽.

추진하였다. 더불어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작전수단으로, 또 현지  
에 나가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의  
목적에서 방송국 건립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방송국 설치과정

1965년 9월 20일 주월한국군사령부 설치령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  
다.<sup>26)</sup> 이어서 1965년 9월 25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에 의해 주월한국  
군사령부가 서울 필동에서 창설되었다.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된 이후 국방부는 방송국 설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해외에 방송국 설치에 방송장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국가주권과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였고, 방송인력 선발 등 해결되어야 할 제반문제가 있었다.

우선 국방부에서는 「한·월 군사실무약정서」를 근거로 남베트남에  
방송국 설치를 요청했다. 1965년 9월 30일 한국 대사관 및 IMAO  
(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Office, 국제군사원조처), 남  
베트남군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에는 필요장비 3대는  
USMAC-V(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주월미  
군사원조사령부)에서 수령하고, 사이공, 퀴논, 캄란(Cam Ranh) 3개  
지역에 설치하게 하며, 이 지역의 전력공급과 방송 전파발사 사용을 위한  
남베트남 정부의 승인 및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5년 11월 1일 개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sup>27)</sup>

이후 남베트남 군 및 외무부와 협조를 진행하여, 1965년 11월 23일  
남베트남 정부(외무부)로부터 위의 3개 지역에 방송국 설치 승인을 받았  
다.<sup>28)</sup> 12월 6일에는 남베트남 당국에 정식으로 무전국 설치허가를 신청

26) 법제처, 『주월남공화국 한국군사령부 설치령(안)』, 1965년 9월 20일.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222쪽.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222쪽.

했고, 전파관리당국에서는 1965년 12월 11일 주월한국군 사이공 방송국에 주파수 1,440kHz, 지방국에는 1,400kHz의 남베트남 주파수 할당사실을 주월 대사를 통해 전달해 왔다.<sup>29)</sup>

방송기술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방송을 운영할 인력의 현지 적응도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1965년 10월 20일 현지 방송국 설립을 위해 국방부 국군방송실장인 이봉은 서기관을 포함한 방송실무요원 제1진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하였다. 1진으로 파견된 국군방송 실무진들은 1965년 11월 15일 남베트남의 퀴논에서 남베트남 방송국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25분씩(07:35~08:00) ‘국군의 방송’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sup>30)</sup> 그리고 남베트남군 방송국의 협조로 중파(610KC, 출력 20kW) 및 단파(7,265KC, 출력 5kW)로 매일 07:35~08:00까지 25분 방송시간을 획득하였다. 이후 본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프로그램 송부로 1965년 12월 1일부터 방송을 실시하였다. 당시 가청범위는 중파 610KC는 남베트남의 전 한국군이 청취 가능한 것이었고, 단파 7,265KC는 남베트남 전역에서 가청되는 것이었다.<sup>31)</sup>

그러나 방송인력의 추가 확보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지 않았다. 1965년 12월 26일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은 국방부 정훈섭외국장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방송인력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문에는 1965년 11월 12일 건의한 방송요원을 시급히 인선 파견하여 줄 것과 현재 파견 중인 이봉은 외 1명에 대하여 3개 지구 방송국 설치 추진과 현재 임시로 실시되고 있는 남베트남 정부 방송국 한국어 방송을 위하여 장기 파견(1년간)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sup>32)</sup>

이에 따라 국군방송실에서는 본격적인 방송국 개국을 준비하기 위해

29)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국방홍보원, 2004, 457쪽.

30)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457쪽.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222쪽.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1, 60쪽.

1966년 2월 22일 KBS직원을 포함한 방송요원 13명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하여 3월 2일에는 퀴논에서 50W의 시험방송을 거친 후 4월 15일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해외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다.<sup>33)</sup>

제1차로 퀴논 방송국이 개국되고, 방송 출력 증강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군의 증파가 이루어짐에 따라 퀴논방송국 1개만으로는 모든 부대에 방송을 전파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방송실에서 방송요원 제2진을 파견하여 1967년 2월 1일 사이공 방송국, 1967년 4월 4일에는 나트랑 방송국, 1968년 3월 1일에는 호이안 방송국, 1969년 3월 1일에는 투이호아(Tuy Hoa)에 중계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방송국은 모두 KFVN라는 단일 호출부호를 가지고 운영되었다.<sup>34)</sup>

#### 다. 방송국 구성 현황

방송국은 주월한국군사령부 정훈참모부 소속이었다. 정훈참모부란, 정신전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참모부서이다. 1964년 5월 15일 제정된 육군의 ‘전시 정훈업무규정’에 따르면 전시 정훈업무를 “전쟁목적을 올바르게 주지시켜 조국의 자유와 국권을 수호하게끔 필승의 신념으로써 최후 일각까지 용전 분투케 하는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sup>35)</sup> 이 같은 업무에 따라 방송국이 정훈참모부에 속했던 것이다.

정훈참모부 산하에는 정훈과, 방송과, 행정실, 영화촬영반이 있었다. 방송국은 방송과(課)의 예하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방송과는 정훈참모의 지시를 받아 예하 방송국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였다.<sup>36)</sup>

방송과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령인 방송과장을 포함 47명의

33)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457쪽.

34)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457~458쪽.

35) 정훈50년사 편찬위원회, 『정훈50년사(1940~1989)』, 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684쪽.

36) 주월한국군사령부, 『편성 및 기능(HB01598)』, 33~34쪽.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는 실질적인 방송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편성관,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 37명의 인력이 군속(현재의 군무원)<sup>37)</sup>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상세한 인원편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월한국군사령부 정훈참모부 방송과 편제<sup>38)</sup>

직책	병과	편제	계급	군
방송과장	정훈	1	중령	육군
방송기재장교	통신	1	소령	육군
방송운영장교	정훈	1	소령	육군
방송실장	정훈	6	소령	육군
방송실장	정훈	1	소령	해병
편성관		1	3갑	육군군속
프로듀서		6	3을	육군군속
프로듀서		2	3을 1, 4갑 1	해병군속
엔지니어		12	3을 6, 4갑 6	육군군속
엔지니어		2	3을 1, 4갑 1	해병군속
아나운서		12	3을 6, 4갑 6	육군군속
아나운서		2	3을 1, 4갑 1	해병군속
		37	3갑 1, 3을 21(해3) 4갑 15(해3)	

출처: 주월사, 『주월사편성표 및 민사원조기획 보고(HB01853)』, 1967, 19~20쪽.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에 군속은 총 40명이 편제되어 있었다. 이 중 거의 대다수인 37명이 방송국의 운영인력이었던 셈이다.<sup>39)</sup> 방송관련

37) 군속명칭은 1980년 12월 31일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군무원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계급체계를 1~9급으로 개정하는데, 3급을류는 5급(사무관), 4급갑류는 6급(주사)로 개정됨. 육군본부, 『인사운영사 제1집』, 육군인쇄공창, 1985, 1095쪽.

38) 정훈참모(육군대령) 예하에는 총 55명이 편제되어 있었으나, 방송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훈과장, 정훈하사관, 교육병 등은 제외함

39) 주월사, 『주월사편성표 및 민사원조기획 보고(HB01853)』, 1967, 20쪽. 나머지 군

인력인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국군방송에 근무 중이었거나, 또는 KBS, MBC, DBS 등 방송분야에 종사했던 인력들이었다. 당시 방송국 내에서는 파월인력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아나운서의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선발 인원들은 출국 전 약 2~3개월의 교육을 거쳐야 했다.<sup>40)</sup> 그러나 시기에 따라 방송요원의 보충문제도 제기되었다. 파월기간 만료에 따른 후임자의 선발, 신원조회, 여권 수속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방송 운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자아나운서의 경우가 자주 그러했다.<sup>41)</sup>

방송요원들은 남베트남 현지에서 각 방송국에 배치되어 보통 1~2년간량 근무하였다. 인원에 따라서는 귀국한 이후 다시 선발되어 재출국하는 사례도 있었다.<sup>42)</sup> 국군방송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기간 KFVN에서 활동한 요원 중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은 아나운서 43명(현역 5명 포함), 프로듀서 24명, 엔지니어 29명(현역 3명 포함) 등 총 96명(현역 8명 포함)이다.<sup>43)</sup>

## 라. 방송국 운영 현황

KFVN은 주월사 정훈참모부 소속으로 4개의 방송국과 1개의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방송국은 한국군 중 맹호부대가 처음 남베트남에 주둔한 퀴논지역에서 1966년 4월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1967년 백마부대의 증파와 해병2여단이 호이안 지역으로 주둔지를 이동함에 따라 추가 방송국이 설치되었다. 또 사이공 지역에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 운영되면서

---

속인 2급갑(대령급) 3명은 민사심리전참모처 정치담당, 경제담당, 사회담당에 보직되었다.

40) 부정길, 「사이공 방송국의 향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82쪽.

41) 주월한국군 정훈참모부, 「업무지원 개선방안 건의(1972.7.4)」,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42) 최대영, 「젊다는 것, 그것은」,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615~616쪽.

43)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1쪽.

방송국은 모두 4개로 증가하였다. 한국군의 주둔지역과 이들 지역간의 가청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계소도 추가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가청범위 확대를 위해 통신출력 증강 작업을 추진하여, 1969년 이후에는 모든 한국군 주둔지역에서 방송청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주월사 예하 한국군 방송국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월사 예하 한국군 방송국 현황

방송국	개국일	방송출력	폐쇄일	청취지역 (부대)	근무요원(누계)			
					장교	문관	사병	계
퀴논	66.4.15	10kW	73.1.30	맹호, 100군수	6	36	21	63
나트랑	67.4.10	5kW	73.1.30	백마, 십자성, 야전사령부	5	37	14	56
사이공	67.2.1	5kW	73.2.12	주월사, 백구, 비둘기, 공지단	6	30	12	48
투이호아 중계소	69.3.15	1kW	73.1.30	백마 28연대		3	8	11
호이안	67.4.10	1kW	72.1.3	청룡	5	24	12	41
총계					22	130	67	219

출처: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한국군 주둔지역에 위치한 방송국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한국군 부대의 정훈참모(중령) 통제를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이공 방송국은 주월사 직할이고, 퀴논 방송국은 맹호부대, 나트랑 방송국과 투이호아 중계소는 백마부대, 호이안 방송국은 청룡부대의 협조와 통제를 받았다.

예하방송국의 방송요원에 대한 인사는 주월한국군사령부 본부가 하였다. 방송요원들은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이었으며,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해당 방송국이 있는 지역 주둔부대에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 배치되었다. 방송국의 방송업무전반에 대해 주월한국군사령부 정훈참모부 방송과의 통제를 받았다. 예하 방송국에는 기본적으로 프로듀서 2명, 아나운서 2명, 엔지니어 2명 등 5~7명이 배치되었다. 각 주둔부대 정훈참모



소속이던 소령이 방송국장으로 보직되었다.<sup>44)</sup>

예하 방송국은 해당 지역부대장에게 배속(경계, 행정 및 군수지원 제공)되었다. 따라서 철군시에는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동시 철수하게 되어 있었다.<sup>45)</sup>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청룡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호이안 지역에 있던 방송국이 1972년 1월 3일 철수하였다. 이어서 한국군의 본격적인 철수가 진행되면서 방송국도 함께 폐국 및 철수의 과정을 거쳤다. 1973년 1월 25일, 주월사령부의 방송폐쇄 지시에 따라 귀논과 나트랑 방송국은 1973년 1월 30일 22시부, 사이공 방송국은 1973년 2월 12일 22시부로 폐쇄되었다.<sup>46)</sup>

#### 마. 방송시간과 프로그램 제작

KFVN의 방송시간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은 1965년 12월 첫 시험방송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발전하였다.

먼저, 주월사 방송국의 방송시간은 주당 총 67시간 이었다. 월~금요일은 1일 9시간(06:00~08:00, 12:00~14:00, 18:00~23:00), 토요일과 일요일은 1일 11시간(12:00~15:00, 17:00~23:00)이었다.<sup>47)</sup> 방송시간의 증가는 인력과 방송시설의 보강, 그리고 청취자의 요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KFVN의 기본프로편성 비율은 교육 25%, 보도 13%, 심리전 7%, 군가 5% 정도였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연예, 오락, 일반교양이었다.<sup>48)</sup>

프로그램은 제작과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한국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남베트남 현지 방송국에서 제작한

44)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198쪽.

45)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46) 주월사 정훈부, 「방송폐쇄지시」,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47)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48) 맹호 정훈참모부, 「정훈장교 회의자료(1971.12. 4)」,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프로그램이었다. 본국 대 현지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은 대략 6:4 정도였다. 본국프로는 주로 보도(18.5%), 오락 (17.7%), 음악(16.3%) 연예(11%) 등이었다.<sup>49)</sup> 한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KBS, MBC, TBC, CBS 등)에서 제작한 주요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CM(광고방송)을 삭제하고, 편집한 다음 항공기로 수송하여 지원하였다.<sup>50)</sup>

〈표 3〉 1971년 KFVN 프로그램 편성 현황

구분	자국제작	본국제작
교육	정훈교실(승공의 길, 복귀의 죄악상) 주 10분 월남어강좌(일상용어 해설) 주 70분 심리전 방송(대 민사심리전) 주 60분 정글속의 메아리(전공미담 소개) 주 20분 군가 및 진중가요 보급 주 70분 오늘도 명랑하게(경쾌한 음악과 스파트) 주 70분	연속낭독(전쟁수기 및 자수간첩수기) 주 60분 인생광장(교양강좌) 주 10분 장막을 헤치고(공산세계의 죄악상) 주 20분 김삿갓 북한방랑기(북한 실정적 풍자) 주 70분 연속방송극(반공, 사극) 주 120분
일반 교양	마음의 산책(영업소개) 주 70분 군중시간(설교 및 신앙강좌로 인격도야) 주 10분 이 한밤 그대와 함께(정서순화) 주 120분	십자성 밤하늘에(정서순화와 인격도야) 주 20분 백만인의 퀴즈(퀴즈문답) 주 45분 명랑백일장(오락프로) 주 30분
보도	7시 아침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1시 낮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7시 저녁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9시 밤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주간종합뉴스(대내 및 본국 뉴스) 주 10분	향토소식(고국 각 지방의 발전상 소개) 주 20분
오락	즐거운 한나절(가요, 스파트) 주 180분 팝송 하이웨이(팝송과 스파트) 주 180분 가요 스파트(국내 및 대내사연과 가요 스파트) 주 180분	민속의 잔치(민요와 우리나라 고전음악) 주 45분 신인무대(아마추어 노래자랑) 주 45분 KBS향연(국내기수 노래잔치) 주 45분 위문열차(장병위문과 음악) 주 20분 희망의 구름다리(국내엽서와 음악 스파트) 주 18분 경음악코너(외국경음악) 주 60분

출처: 맹호 정훈참모부, 「정훈장교 회의자료(1971. 12. 4)」,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49)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50)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2쪽.

현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주월사령부의 방송활동 목표를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당시 주월사는 방송활동의 목표를 ① 군사령관 방침전파, ② 주월군 활약상 보도, ③ 승공사상 고취, ④ 국제친선과 이해증진, ⑤ 진중생활의 명랑화로 상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현지 제작한 자국 자체 프로그램은 교육(10%), 군가 및 진중가요(10%), 스파트(Spot, 속보) (10%), 지시 및 방침(5%), 한월친선(1.5%)의 내용 등이었다.<sup>51)</sup>

## 바. 방송장비 현황

주월한국군 방송국은 처음에는 남베트남 국영방송의 장비를 임차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공이나 다낭의 남베트남 방송국을 임차하여 방송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지원으로 독자적인 방송장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8년 이전까지만 해도 방송출력이 250W정도로 대단히 미약한 것 뿐만 아니라 방송제작 장비 또한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재 중 일부는 노후화된 군용통신장비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녹음 및 복제시설 등 방송장비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당시 주월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효율화 대책으로 4개 방송국을 통제할 수 있는 1개 방송국(중앙통제방송국)의 증설 이외에 방송장비 교체, 출력 5kW의 송신시설 보강, 녹음 및 복제시설의 구비, 방송요원의 증편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sup>52)</sup>

그러나 당시 제시한 대책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출력 증강과 제작장비 보강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군의 작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별봉사계획’에 의거, 미국측과 KFVN 시설보강과 출력증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미국측의

51)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52) 주월사, 『주월사 부대현황(HB02225)』.

지원으로 1969년 3월 1일에는 투이호아에 출력 50W의 증계소를 설치하였다.<sup>53)</sup>

지역방송국의 방송장비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졌다. 방송장비는 방송 제작장비, 송신기, 그리고 증계기 등으로 구분된다. 각 방송국별로 방송 장비의 구체적인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71년도 퀴논 방송국의 방송장비 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용 녹음기, 편집용 녹음기, 취재용 녹음기 등의 방송제작장비, 송신기, 그리고 방송의 안정적인 전력지원을 위해 발전기가 인가대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성능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다른 방송국의 장비와 성능도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 1971년도 퀴논 방송국 방송장비 현황

장비명	인가수	보유수	비고
방송용 녹음기(고정)	2	2	성능양호
편집용 녹음기	2	2	성능양호
취재용 녹음기(휴대용)	2	2	성능양호
송신기(고정)	1	1	성능양호
믹서(고정)	1	1	성능양호
발전기(60)	2	2	성능양호

출처: 맹호 정훈참모부, 「71년도 정훈활동 지침(1971. 2. 15)」,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53)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사』, 933~934쪽.

## 4. KFVN 운영성과 분석

지금까지 KFVN의 설치목적과 과정,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7년여 간 운영된 KFVN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방송국 설치의 주된 목적이었던 파월 한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기진작 측면, 심리전 수단 측면, 그리고 방송국 운영의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방송기술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 가. 파월 장병 사기 진작

KFVN의 주 방송대상은 파월장병이었다. 장병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전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남베트남 현지에 파견된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KFVN의 1차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 무엇보다 이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파월장병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베트남전쟁이 종전된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조사의 실현성이 의문시 되는 점이 있다. 이점에서 베트남전쟁 기간 정훈참모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방송 청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sup>54)</sup>

주월사 정훈참모부는 1972년 5월 1일~6월 15일까지 한국군을 대상으로 방송청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방송국은 사이공, 퀴논, 나트랑 3개 방송국이었다. 조사인원은 퀴논 방송국 600명, 사이공 방송국 400명, 나트랑 방송국 청취지역(9사단, 100군수사, 야전사) 800명 등 1,800명(장교 350명, 병사 1450명)이었다. 18개 문항의 설문지

54) 물론 이것이 군의 내부조사결과인 점에서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객관식 15, 주관식 3)를 이용하였다.<sup>55)</sup> <표 5>는 당시 설문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방송청취 설문조사 결과

질문사항	응답 결과
방송청취수단	개인라디오 39%, 동료라디오 57%, 확성기 4%
개인별 청취율	매일 듣는다 47%, 가끔 듣는다 43%, 전혀 안 듣는다 10%
부대별 청취율	전투부대 60%, 행정근무부대 92%
1일 청취시간	7~8시간 9%, 5~6시간 12%, 3~4시간 32%, 1~2시간 47%
청취시간대	20~22시 33%, 12~14시 30%, 18~20시 22%
청취감도	잘 들린다 70%, 낮에만 들린다 23%, 밤에만 들린다 5%, 전혀 안 들린다 2%
방송내용	흥미 있다 44%, 생활에 도움이 된다 24%, 그저그럴다 23%, 흥미없다 9%
좋아하는 프로	뉴스 24%, 음악프로 43%, 연속방송극 19%, 오락프로 13%
좋아하는 아나운서	여자 40%, 남자 17%, 아무나 무방하다 43%
듣지 않는 이유	근무시간 48%, 취미가 없어서 13%, 내용이 흥미 없어서 15%, 라디오가 없어서 24%
월남어 프로	꼭 필요하다 39%, 필요없다 24%, 너무 어렵다 26%, 너무 짧다 11%
미국의 소리	도움이 된다 65%, 필요 없다 35%
싫어하는 프로	월남어 교육 83%, 미국의 소리 중계 17%
좋아하는 프로	대중가요 29%, 가족통신 29%, 한밤의 음악편지 21%, 연속방송극 21%

출처: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청취 여론결과 하달(1972.7.7)」,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설문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병들은 라디오방송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55)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설문 계획(1972.5.1)」,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여론 결과 하달」(1972.7.7),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관계철(HB01713)』.

청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절반 이상이 매일 3~4시간 이상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다. 청취감도도 70%가 잘 들린다고 했고, 전혀 안 들린다는 2%에 불과했다. 이는 라디오 방송이 기술적·내용적으로 장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이다. 또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의 라디오를 이용해 듣고 있어 상당수의 라디오가 보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대별 청취율이 전투부대 보다 행정부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전투부대는 작전 임무 등으로 인해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7명이 흥미가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좋아하는 방송프로는 음악프로 43%, 뉴스 24%, 연속방송극 19%, 오락프로 13% 순이었다. 방송 내용이 흥미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듣지 않는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때문이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라디오 방송은 자연스럽게 장병들을 위무(慰撫)하고, 전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방송과견요원이었던 부정길의 증언은 라디오가 장병들에게 끼쳤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월한국군 소속 김재웅 소위의 엽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아마도 군방송이 없었다면 전투에 나가지 않으려는 병사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귀대해서는 물론이고 작전 중에도 틈만 생기면 라디오를 대고 있으니까요. 어떤 녀석은 라디오를 꺼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나도 물론 고국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절로 시름까지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방송이란 것이 이처럼 위대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항상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병들이 이국 땅에서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sup>56)</sup>

56) 부정길, 「사이공 방송국의 향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84쪽.

타국에 파병간 한국 장병과 현지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라디오방송은 매우 귀중한 존재였다. 이것은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뉴스제공이라는 당초 방송국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결과였다. 퀴논 방송국 개국 당시 방송국장 한용희는 방송이 “한국의 흠냄새를 풍겨주고 있다”<sup>57)</sup>고 표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KFVN의 당초 설립 목적인 장병 사기진작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심리전 성과

KFVN의 설립목적 중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심리전 분야였다. 심리전이란 일반적으로 군사적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전을 특정집단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sup>58)</sup> 심리전은 대상에 따라 대외 심리전, 대내 심리전, 대적 심리전, 대민 심리전 등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전쟁 당시 KFVN이 수행하였던 심리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군 장병들이 적국의 심리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 심리전, 둘째, 남베트남 현지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對民) 심리전, 셋째, 북베트남과 북한 등 지원 국가 병력들을 대상으로 한 대적(對敵) 심리전이다. 여기서는 심리전 대상에 따라 각각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내 심리전 : 장병들에 대한 적 심리전 오염 방지

북한은 1965년부터 하노이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평양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한국 민요와 동요를 방송하였지만, 내용은 북한소식, 반미선전 등을 내 보내고 있었다.<sup>59)</sup> 한국군방송국이 아직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57) 『동아일보』, 1966년 5월 14일자.

58) 조영갑, 『민군작전과 심리전』, 국방대학교, 2006, 72쪽.

59) 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58~59쪽.



전이라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KFVN 설립 1진으로 베트남 현지에 갔던 한수연은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월남에는 우리 장병들뿐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고국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노이에서 송출하는 평양방송이 있었는데 모두 그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방송내용은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월남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이었고, 가요는 전부 국내에서 인기 있고 귀에 친숙한 곡들이었다.<sup>60)</sup>

북한과 북베트남이 한국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 방송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67~1970년까지 적성방송은 총 22,765회가 청취되었다. 방송 내용으로는 선동의 내용과 한국·미국·남베트남·일본을 비난하는 내용, 베트남전 반대, 북한찬양, 선동과 허위 사실 전파 등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허위사실 전파로 총 10,440건(46%)이었다. 그리고 한국비난 2,578건(11%), 미국비난 2032건(9%), 북한 찬양 1982건(8.7%) 순이었다.<sup>61)</sup>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적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남베트남 정부와 협의하여 임시로 귀논에 있는 남베트남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25분씩 국군의 방송을 실시했다.<sup>62)</sup> 아울러 한국군 방송국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에 방송국을 개국하고, 출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한국군 주둔지역에서는 북한방송보다는 한국군 방송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어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심리전 방송프로그램은 심리전 목적에 맞추어 목표 대상 집단의 흥미와 관심을 북돋을 수

60) 한수연, 「정성 심(心)」,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53~554쪽.

61)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194~195쪽.

62) 한수연, 위의 글, 553~554쪽.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뉴스보도, 음악, 연설, 대담, 토론, 좌담, 스포츠, 종교 프로 등이 있는데, 심리전에서는 적절히 조화하여 상대방의 심리에 자극을 줄 수 있게 프로를 편성하여야 한다.<sup>63)</sup>

KFVN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전 기능에 대응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KFVN의 방송활동의 제1목표는 군사령관 방침전과였다. 이어서 승공사상 고취도 포함되어 있었다.<sup>64)</sup> 이런 방송 목표는 당시 방송계획에도 반영되었다. 이런 사례로는 방송내용에 각 참모부별 교육내용을 반영한다든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의 내용을 방송에 포함, 전달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1972년 제1차 참모부별 방송계획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주월한국군 사령부 각 참모부서가 방송의 기능을 이용하여 장병들에게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지휘방침과 ‘3훈 5계 정신’<sup>65)</sup>을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1972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방송국을 이용 매주 금요일 10분간 교육하였다.<sup>66)</sup>

예하사단에 속해 있는 방송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1972년 맹호사단의 경우 귀는 방송국을 통해 매주 월요일 10분씩 장병심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sup>67)</sup> 예하연대의 정훈과장이 순번제로 방송국에 나와 정신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였다.<sup>68)</sup> 또, 사단 웅변대회에서

63) 육군본부, 『야전교범 33-5 심리전』, 1988, 104쪽.

64)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65) 3훈 5계란 1970년 5월 1일 주월한국군사령관 이세호 장군이 지휘각서 제1호로 하달한 기본활동지침으로, 3훈은 ①우리는 적에게 용감하고 무서운 “한국군”이 되자 ②우리는 월남인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른 “따이한”이 되자 ③우리는 우방군에게 굳기 엄정하고 신의 있는 “코리안”이 되자이며, 5계는 북무중 범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계율로 명령불복, 경계태만, 사육범행, 대민사고, 허위보고이다. 전사편찬위원회, 『과월한국군전사』 제10권, 전사편찬위원회, 1985, 742쪽.

66) 정훈참모부, 「참모부별 방송교육계획(1972.3.30)」, 주월사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67)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2. 1. 1~1972. 12. 31)(HB01868)』.

68) 맹호 정훈참모부, 「71년도 정훈활동 지침」(1971. 2. 15)」,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입상한 장병들의 응변내용을 녹음하여 매일 10분간 1주일에 걸쳐 방송하기도 하였다.<sup>69)</sup> 전투전과 보도라든지 속보 또는 사령관의 담화문 등 주월한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내 보낼 때에는 송출면적이 넓은 남베트남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서 통일된 방송을 시도하기도 했다.<sup>70)</sup>

방송을 통한 정신교육 효과는 입증되었다. 장병들은 라디오가 제공하는 각종 스팟(Spot)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절반 가까운 장병들은 이런 교육으로 정신무장이 강화되었다(47%)고 하였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6%였다.<sup>71)</sup> 또한 대내 심리전의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베트남 전쟁기간 한국군 참전 인원은 연인원 324,864명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월북으로 추정되는 실종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sup>72)</sup> 이 같은 수치는 당시 북베트남군뿐만 아니라 북베트남에 파견 나온 북한 심리전 요원의 전단 살포 및 라디오 선전활동이 빈번했음을 고려할 때 대단히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KFVN을 통한 장병 교육 및 심리전 오염방지 활동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대민 심리적 성과

남베트남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방송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자. 남베트남 현지 주민들은 KFVN의 주 청취자 중 한 부류였다. 과거

『참고철(HB01383)』.

69) 맹호사단 정훈참모부, 「응변대회 실시 지시」(1971. 12. 21),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70) 부정길, 「사이공 방송국의 향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85쪽.

71)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설문 계획(1972. 5. 1)」,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 (HB01713;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여론 결과 하달」(1972. 7. 7)」,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72)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9쪽, 43쪽. 이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기간 실종 처리된 한국군은 총 8명이다. 이중 1명은 2002년 유해가 발굴되었고, 3명은 순직 및 전사 처리되었고, 4명은 현재까지 수배중이다. 현재까지 수배 중인 4명 중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3명이며, 이중 2명은 북한의 전단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진해서 월북했는지, 아니며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갔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6·25전쟁 당시 한국 상류층에서 미군방송을 전황보도 및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차원에서 청취하였던 것처럼, 남베트남 주민들 또한 한국방송을 즐겨들었다.<sup>73)</sup> KFVN은 남베트남 주민들이 한국군을 보다 친근하면서도 청취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월남어 방송과 위문공연, 그리고 고별방송을 예로 들 수 있다.

월남어 방송은 KFVN에서 일부시간을 할애하여 월남어로 방송하는 프로였다.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월남어 교육이 아니라 남베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북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마치 6·25전쟁시기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유사한 것이었다.

월남어 방송은 귀는 방송국의 경우 1972년 6월 15일부터 하루 30분(오후 2시와 밤 10시부터 각각 15분)씩 운영하였다. 뉴스와 짙막한 남베트남 대중가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거나 한국군의 참모습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순서로 짜여졌다.<sup>74)</sup> 월남어 방송은 1972년 4월 안케패스(AnKhe Path) 작전 때 월남어 방송을 실시해서 작전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sup>75)</sup> 이를 계기로 주월사 정훈참모부는 “격변하는 전황 속에서 지역 내의 주민이 여하한 상황이라서도 한국군을 지지 신뢰하고 우리의 작전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심리전 방송을 전개”한다는 목적하에 방송을 계획·시행하였다. 방송의 구체적 내용은 ① 한국군 소개 및 작전보도 ② 민사심리전 방송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불안감 제거, 작전부대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의식 고취, 첩보제공에 대한 구체적 방법, 한국군의 참모습 선양 ③ 승공

73) 부정길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에는 베트남 자국방송을 비롯해 주월한국군방송과 미군방송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국군방송은 군인들은 물론이고 남베트남인까지도 사이공의 소리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회고한다. 부정길, 앞의 글, 584~585쪽.

74) 『동아일보』, 1972년 8월 9일자. 당시 월남어 방송은 귀는 방송국장 보좌관이며 외국어대학교 월남어과를 졸업한 허원구 중위와 남베트남군에서 파견 온 중사가 담당하였다.

75) 『동아일보』, 1972년 8월 9일자.

사상 양양을 위해 공산당의 죄악상과 그들의 말로 소개, 민주주의의 장점과 이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식고취 ④ 한국문화소개로 한·월 일체감 형성 등이었다. 월남어 방송은 1차적으로 귀는 방송국에서 실시하고 효과에 따라 지역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남베트남인 방송 요원(아나운서)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sup>76)</sup> 그러나 월남어 방송은 4개월 가량 시행되다 1972년 10월 6일부로 잠정 중단되었고, 10월 21일부로 완전 중단되었다.<sup>77)</sup>

두 번째로 장병 위문공연을 들 수 있다. 이 공연은 단지 장병들뿐만 아니라 현지주민들에 대해서도 공연하였다. KFVN의 PD로 근무했던 정연익은 “사이공에서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장병 및 현지주민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었지만, 한국공연단이 제일 인기가 높았다. 한국 공연이 있는 날이면 사이공은 전쟁의 시름을 잊고 현지주민들이 장병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시내를 주유하기도 하여 통제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연이 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남베트남 주민들에게 선무사상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sup>78)</sup>고 했다.

세 번째로 KFVN의 고별방송은 한국군의 철수에 맞추어 남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방송이었다. 이것은 당시 남베트남인들에게 한국군이 어떤 이미지로 남기를 희망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고별방송의 의도는 “월남땅에 첫발을 내디딘 1965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76) 정훈참모부, 「대적 대민 월남어 심리전 방송 계획(1972. 5. 26)」,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77) 정훈참모부, 「대월남어 방송 폐쇄(지시)(1972. 10. 21)」,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미 미군이 철수하였고, 한국군도 해병대가 1972년 2월 철수하고, 1973년 초부터 본격적인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이기에 한국군 철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8) 정연익, 「잊을 수 없는 나트랑 방송국」,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612쪽.

남베트남 현지주민들에게 주월한국군의 용맹성을 마지막까지 심어주자”는 것이었다.<sup>79)</sup>

3개 방송국별로 45분 분량의 고별방송을 제작하는데, 내용은 남베트남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군 파월의 의의(10월 유신에 관한 내용 포함), 파월 및 방송국 연혁, 방송기간의 업적, 전투부대의 활약과 대민지원의 성과, 주월군 10대 뉴스, 주월한국군 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과 특수 프로그램 소개, 각 부대장 고별인사, 명예로운 철군과 우리(10월 유신사항 포함)의 각오, 이별의 노래였다.<sup>80)</sup>

KFVN은 남베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남어 방송을 비롯해 위문공연, 고별방송 등을 편성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한국군에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점에서 KFVN의 대민 심리적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대적 심리전 성과

대적 심리전은 베트남 및 북베트남, 그리고 북한 등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베트남전쟁 당시 KFVN이 대적 심리전을 어느 정도로 실시했는지 상세한 자료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부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대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다.

주월사 자료에 따르면, 1972년의 경우 KFVN 퀴논방송국의 경우 1~4월에는 매일 10분씩(토, 일 제외) 대적선전 및 주민선무방송(월어)를 실시하였고, 5월 이후에는 30분으로 시간을 증가하여 실시하였다. 1~4월 기간 중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보내는 한국어 방송도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sup>81)</sup> 그러나 이 같은 대적 심리전 활동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시 한국군 방송을 청취했던

79) 주월사 정훈부, 「방송폐쇄지시」,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80) 주월사 정훈부, 「방송폐쇄지시」,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81)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2. 1. 1.~1972. 12. 31)(HB01868)』.

인원들을 조사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당시 북한을 포함해서 베트남과 북베트남에서 KFVN을 청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KFVN에 엔지니어로 참가하여, 2년 여 기간 동안 호이안, 퀴논, 사이공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최대영은 북한 파견인원과 접촉했던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한번은 낮방송을 끝내고 송신기를 내리는데 수신 모니터에서 이북 특유의 사투리가 흘러나왔다. “김기찬 아나운서, 최대영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의 방송 매우 잘 들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고생 많습다. 지금부터는 북조선 방송을 시작할끼니 잘 들으시라요. 또 봅세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런 일이 있는 후로 방송보안에 대한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은 물론이다.<sup>82)</sup>

그렇다면 한국군의 대적 심리전 효과를 평가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 전쟁기간 한국군에 귀순한 적군의 통계자료는 대적 심리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65~1970년까지 귀순자는 2,379명이었다. 2,379명 중 베트남군은 1,579명, 북베트남군 36명, 기타 적군 동조자 및 적성주민 764명이었다.<sup>83)</sup>

그러나 이러한 실적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대적 심리전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디오 방송국은 심리전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국 아나운서가 대민지원 성격을 띤 선무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민간인 마을에 파견되어 수행하기도 하였다.<sup>84)</sup> 그러나 대적 심리전은 라디오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주월한국군의 심리전 작전은 주로 참모부로 편제되어 있던 민사심리전처에서 담당하였다.

82) 최대영, 「젊다는 것, 그것은」,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616쪽.

83)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188~189쪽.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귀순자는 총 현황을 살펴보면, 2487명이었다.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7, 134쪽.

84) 최대영, 위의 글, 616~617쪽.

라디오방송국은 이런 심리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방송 이외의 심리전 활동으로는 전단, 확성기 방송, 영화, 연예공연, 사진전시, 태권도 시범, 국산 달력 배부, 포스터, 표어, 의장대 시범, 스케치 전시회, 군악연주 등이 실시되었다.<sup>85)</sup>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디오 방송의 대적 심리전 성과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대적 심리전에 라디오 방송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다. 방송기술적 측면 성과

KFVN 운영의 성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방송기술적 측면이다. 장병사기 증진 및 심리전에서의 성과가 방송국 설치목적 측면에서 분석한 성과라면, 방송기술적 성과는 방송국 운영의 결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송기술적 측면의 성과는 크게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향상과 방송운영 장비 및 기술의 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기술은 베트남 현지 제작기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제작의 향상이었다. 당시 국내 방송사들은 베트남 현지에 방송을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내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방송운영장비를 지원받았다. 관련하여 당시 미국 기술진으로부터 방송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송 기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한국군 및 한국방송기술의 성장으로 나타났다.<sup>86)</sup> 그리고 1973년 3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당시에는

85)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400~401쪽.

86) 방송기술인력으로 호이안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던 최대영은 당시 미 RCA사에서



운영하던 장비를 모두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들 장비는 국내에서 국군방송의 제작에 사용됨과 함께 KBS와 협조하여 난청지역 송신소(원주방송국, 인제송신소, 양구송신소)에 배치되어 국내방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sup>87)</sup>

## 5.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전쟁시기 KFVN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라디오 방송은 동시간대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라디오의 유용성은 여러 전장에서 활용되었고,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 또한 이를 운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KFVN은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되면서 장병사기진작과 뉴스제공, 그리고 심리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해외 한국어 방송국이었다. 1965년 12월의 시험방송부터 1973년 2월 방송국이 폐쇄되기까지 7년여간 운영되었다. 그 성과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병사기진작 측면에서 방송국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파월장병 대다수가 방송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송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남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장병 및 근로자를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일체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심리전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당시 북베트남과 북한의

---

과견된 미국인 기술고문과 필리핀인 엔지니어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최대영, 앞의 글, 615~616쪽.

87) 방송장비를 KBS에 양도할 때는 군원문제로 미국정부의 승인도 필요했다.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7쪽, 460쪽.

심리전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한국군 라디오 방송은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리전 오염방지와 대민, 대적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한국군방송은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군을 알리고 한국군을 선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비록 3명의 월북(또는 추정) 인원만 발생했을 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기간 총 2,487명의 북베트남 및 베트남을 귀순하는 데 선무방송, 전단 등 다른 심리전 매체와 함께 크게 일조하였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군의 방송기술 및 국내방송기술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다양한 방송장비의 확보와 철수 후 국내 방송에 활용된 것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방송제작 경험, 국내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현지 방송 등을 통해 전반적인 방송 기술의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전장에서 자국의 방송을 운영해본 경험은 계속해서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군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경험적 자산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결과 당시 KFBVN은 세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미군의 라디오 방송처럼 파월장병들에게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는 과거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친미와 반공을 목표로 운영하였던 VOA방송처럼 한국과 한국군을 베트남 주민들에게 알리는 선전효과와 반공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는 6·25전쟁시기 유엔군사령부의 라디오 심리전 방송이었던 VUNC처럼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심리전 작전기능을 수행하였다. 결국 KFBVN은 베트남 현지에 있었던 한국군 및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남베트남 현지인들과 북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심리전, 그리고 한국의 대외홍보라는 복합적 성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일부 방송역사서에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던 최초의 해외방송국인 KFBVN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던 점은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전파가 국가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주권국가로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군 용병 논란’에 대해서도 중요한 반론의 증거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적 한계와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송국 운영에 대한 성과는 한국군자료에 의한 평가라는 제한이 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북베트남 등 방송 청취자 측의 반응도 운영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북베트남에서 전개하였던 라디오를 비롯해 심리전 전개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당시 방송제작 및 운영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한 구술사적 접근은 문헌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송의 운영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주월한국군방송국, 국군방송,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남베트남(월남), 라디오, 전쟁, 심리전, 북한방송, 정훈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 Force Vietnam Network(KFVN)'s Installation and Operation during the Vietnam War

Lee, Sin-jae

Headquarters of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ROKF-V) established on its own radio station in 1965 and operated it during the Vietnam War. The name of radio station was "Korea Force Vietnam Network(KFVN). KFVN had been operated for more seven years from December, 1965 to February, 1973. KFVN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that KFVN was the first overseas Korean broadcasting system in the Korean broadcasting history. However, despite of those highly evaluation for the KFVN, the study of that topic had not been for a long time.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KFVN during the Vietnam W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KFVN's main focus and process, and analyze of outcome of operations.

KFVN had transmitted broadcasting of various programs of news, entertainment, music,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And also it enhanced the morale of the soldiers, and performed psychological warfare toward ROK soldiers, South Vietnam's peoples and the North Vietnam as well.

During the operation time period of KFVN, it had three major achievements. Firstly, KFVN had contributed to ROK military soldiers's morale during the Vietnam war. Secondly, KFVN played a important role in psychological warfare. KFVN also had improved Korean broadcasting technic and skills.

Key Words : Korea Forec Vietnam Network(KFVN), Korea Force Network (KFN), Vietnam War, Korea Force-Vietnam, The Republic of Vietnam(South Vietnam), Radio, War, Psychological Warfare, North Korea's Broadcasting,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